한우 입식우 이차보전 추진

임실군, 2022년까지 4년간 800두분 지원 · 1인당 3000만원 대출

임실군이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암송아지 이차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임실군이 축산 농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암송아지 이차보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민선 7기 축산농가를 위한 대표공약으로 한우 암송아지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 축산농가들의 고충과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은 한우 번식우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송아지 재생산을 확대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우 암송아지 800두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비 2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오는 3월 말에 임실축산업협동조합과 대출 및 이력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농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2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군은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이자 6% 중 농가부담은 1%로 확정하고, 나머지 5%는 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차분으로 300두 입식하고, 2020년 2차분 500두를 입식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형질이 우수한 송아지의 관내 재입식을 통한 번식우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업농 육성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 민 군수는 "민선 7기 공약으로 한우 암송아지 이자보전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송아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겠다"며 "군비 지원을 통해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춰서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많이 키워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고추장불고기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 좋은 순창, 맛있는 한끼'

순창 '고추장 불고기' 브랜드화 사업 추진

순창군이 올해 '고추장불고기 브랜드화' 사업을 시작으로 고추장불고기촌 조성까지 추진해 '맛있는 도시 순창'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군은 그동안 '순창고추장' 유명세에 비해 이를 활용한 음식자원이 부족해 대표 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지역의 대표 소스인 고추장과 결합해 인지도를 활용하고 고추장의 소비 진작을 위해 대표 먹거리로 '순창고추장불고기'를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순대와 한정식 외에 순창을 대표할 음식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군은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떠오른 미식투어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로 순창 전통고추장을 활용한 고추장불고기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군은 원광보건대학 외식조리학과 교수들과 순창고추장불고기 브랜드화를 위해 식당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고추장불고기를 음식체험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관광상품을 기획중이며 발효소스토굴, 고추장마을, 강천산 등과 연계한 미식투어 상품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음식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어 맛있고, 재미있고, 가치있는 '순창 고추장불고기'를 스토리텔링하여 명실상부한 음식관광 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며 "가장 순창다운 순창을 맛볼 수 있는 차별화된 음식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수도권 여행사 집중공략… 600만 관광객 유치

남원시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관광업계 대표와 언론매체 종사자 등 관광 관련 인물 100여명을 초청하여 광한루600년을 맞이해, 600만 관광객유치 목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원시 대표공연인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의 화려한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이번 설명회는 남원시 김동규 부시장의 환영인사와 함께 2019년 남원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영상을 통해 '볼거리 · 먹거리 · 즐길거리 · 잠자리' 등 다양한 남원의 관광자원과 관광지로서의 강점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2019년은 광한루가 건립된 지 600년을 맞는 해로 시에서는 이에 발맞춰 600만 관광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설명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여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인 지리산을 연계해 여행상품 발굴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며 오늘 설명회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대토론회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 대토론회를 열어 남원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장을 펼쳤다.

남원시는 13일 남원화장품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간부공무원들과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대표자들과 함께 남원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 · 소장, 각 부서장, 도 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남원시 최대의 현안인 일자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 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서별 보고를 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등 남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집중하여 논의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활성화 일자리 사업 활성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씨감자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용 방안이다.

더불어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 ▲남원 문화창작 길거리 공연단 운영 ▲어린이집 취사도우미 지원사업 등 남원의 특성을 방안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다수 논의됐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신 부서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남원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 귀농귀촌 전문 멘토단 육성

임실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전문멘토단 육성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귀농귀촌 전문 멘토단을 대상으로 육성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2월 읍면장, 임실군 귀농귀촌협의회, 임실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풍부한 현장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11명의 멘토(품목멘토 9, 상생멘토 2)를 선정했다.

귀농귀촌 초보자들에게는 영농준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필요한 기본 마인드 및 농촌생활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임실군은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해 소득증대 사업 등을 집중지원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57세대 2,799명의 귀농귀촌인을 양성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

심 민 군수는 "향후 5년간 최대 5000 세대의 도시민들이 임실을 찾아와 떠나가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살맛나고 활기넘치는 생동감 있는 임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발

순창군이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대여율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농번기 기간(3월~6월)중에는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추진한다.

군은 현재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농업기술센터내)와 분소 농기계 임대사업소(구림 소득개발 시험포 인근) 2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토요근무는 본소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농가들의 이용률에 따라 분소로까지 토요일 운영을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1억원을 포함해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장비 교체 및 여성친화형 임대장비 등 20기종에 80여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농가편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각 읍 면 마을단위 순회수리도 60회가량 실시해 민생 영농행정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농가에서 농기계 임대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임대농기계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는 한편 농기계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최종 선정

순창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군은 그동안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지목변경 미 이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한 국공유지 1,682필지 이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간 지목 불일치 토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군은 국공유지 불일치 자료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상반기까지 정비대상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후 관련서류 검증을 통해 지적공부 정리를 20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 공유지 지목불일치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